

퇴간유고(退澗遺稿) 신염(申濂)

16世 염(濂)

父 : 하석(夏錫) 祖父 : 재 (在)

읍파(邑派)만오공파(晩悟公派)



신염(申瀛)

1. 저자

1) 李鎭東(?~?)은 경상도 안동 지역에 살았던 인물이며,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가 뚜렷하지 않다. 號는 寡齋이다.

2) 申瀛(166~?)의 本貫은 鵝洲, 字는 學源, 號는 退澗이다. 贈參議 申元綠의 5세손, 丁卯年 斥和 扈聖功臣 贈都承旨 申達道の 증손, 通德郎 申夏錫의 아들이다. 경상도 의성에 거주했으며, 1699년 (숙종 25) 己卯 式年試에 生員 三等 13위로 합격했다.

2. 구성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申倡義錄은 모두 두 종류인데, 제목은 같지만 내용은 전혀 상이하다. 申無心창의록(1)은 1728년 무신변란시 경상도 북부 지역에서 일어났던 의병의 움직임을 총 망라했고, 申無心창의록(2)는 무신변란시 의성지역의 의병 활동을 정리한 것으로 신림의 문집 申退澗集의 雜著에 들어갈 내용이었다.

1) 5권 2책이다. 책머리에 유후조가 쓴 서문이 실려 있다. 권1부터 권3까지는 안동, 상주 등 경상도 북부 지역의 창 의 사실을 기록했으며, 권4는 別錄, 續別錄으로 앞 권에 빠진 내용을 보완했다. 권1부터 別錄까지는 1788년(정조 12)에 조정에 올랐을 때의 자료이며, 속별록은 고종대에 간행하면서 별도로 보완한 자료이다. 권 5에는 영조와 정조대에 있었던 이 지역 의병 활동에 대한 정부의 포상과 관련한 사실들이 실려 있다. 권1부터 권4까지의 기술은 대체로 비슷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 먼저 의병대장을 비롯한 각 직임과 그 담당자들의 명단을 제시하고, 이어 軍門日記, 軍門節目, 軍令, 그리고 檄文 등을 실었다. 각 권별 구성은 다음과 같다.

권1

安東義兵

軍門坐目: 大將, 副將, 左防將, 右防將, 參謀, 都書記, 書記, 整齊有司, 司兵都摠, 司兵有司, 管糧有司, 出令都監, 軍官, 別軍官, 執操旗牌官, 募兵都監, 募糧都監, 校任.

三溪書院倡義坐目 : 召募都監, 募糧都監, 軍門都執禮, 日記有司, 書記, 軍器都監.

道淵書院倡義坐目 : 召募都監, 募糧都監, 勸起有司, 運糧都監, 軍器都監, 書寫.

軍門日記, 軍門節目(12조목) 「通一鄉文」, 「通道內文」, 「激一鄉文」, 「檄道內文」, 「三溪書院通校中文」, 「道淵書院檄面中文」, 「號召使與安東士林書」, 「上將與禮安義將書」, 副將答禮泉義將書.

尙州義兵

軍門坐目：大將, 中軍, 參謀, 召募官, 召募有司, 掌書, 管糧, 典兵都摠, 典兵副摠, 軍官, 典兵有司, 募粟有司, 募兵有司, 校任.

軍門日記, 軍門節目, 軍令, 榜, 「召募使通尙州鄉校文」(在安東時), 「玉成書院通鄉校道南興巖兩書院文」, 「書軍中文」, 「報本州狀」, 「本官報都巡撫使狀」, 「召募使報按撫使狀」.

禮安義兵

軍門坐目：大將, 副將, 參謀, 書記, 召募官, 軍官, 軍器都摠, 管糧都摠, 募糧官, 整齊將, 行首軍官, 記過軍官, 公事員.

軍門日記, 軍門節目(6조목), 「檄一鄉文」, 「傳令」, 「答安東義陣文」, 「上按撫使書」.

권2

醴泉義兵

軍門坐目：大將, 副將, 參謀, 左領將, 右領將, 義糧都摠, 軍器都摠, 掌書, 守門將, 糧料書記, 日記有司, 僉正都監, 書記, 召募將, 軍官, 行軍座首.

軍門日記, 軍門節目(11조목), 「檄郡中文」, 「答安東義陣文」, 「報按撫使狀」, 「本郡守在烏嶺與義將書」.

榮川義兵

軍門坐目：大將, 有司, 副將, 有司, 參謀, 整齊有司, 書記, 管糧都摠, 有司, 書記, 左部將, 右部將, 軍官, 旗牌官, 組練將.

軍門日記, 「道內通文」.

順興義兵

軍門坐目：大將, 參謀, 書記, 整齊有司, 司兵都摠, 有司, 管糧都摠, 有司, 司馬有司, 左部將, 右部將, 召募將, 頒料有司, 運糧有司, 中部將, 旗牌官, 組練將.

軍門日記, 軍門節目(13항목), 「答榮川義陣文」, 「答安東義陣文」, 「通左道列邑文」.

豐基義兵

軍門坐目：大將, 副將, 參謀, 書記, 都執禮, 司兵, 領將, 整齊有司, 管糧都監, 日記有司, 都廳.

軍門日記, 軍門節目, 「傳令」.

권3

永川義兵

軍門坐目：大將, 參謀, 掌書, 司兵都摠, 組練將, 組練都摠, 出令有司, 管餉, 召募都摠, 召募有司, 白衣從事.

軍門日記, 軍門節目, 「諭境內士子文」, 「答安東義陣文」, 「上按撫使書」, 「上本官書」.

義城義兵

軍門坐目 : 大將, 軍門都摠, 參謀, 都書記, 司兵都摠, 整齊有司, 出令有司, 管餉都摠, 組練都摠, 日記有司, 軍官, 事知旗牌官, 組練將, 募糧都監, 募兵都監.

軍門日記, 軍門節目, 「誓軍中文」, 「檄一鄉文」, 「諭各面募兵募糧都監文」, 「回諭義興倡義所儒生文」, 「回諭軍威倡義所儒生文」, 「移檄軍威義興比安文」, 「答安東義陣文」, 「報按撫使狀」.

英陽義兵

軍門坐目 : 大將, 參謀, 裨將, 都摠, 副摠, 左哨官, 右哨官, 募兵都監, 募糧都監, 書記.

軍門日記, 「軍中約誓文」.

奉化義兵

軍門坐目 : 大將, 左副將, 右副將, 書記, 整齊有司, 管糧都摠, 出令都監, 執操旗牌官, 別軍官.

軍門日記, 軍門節目, 軍門規約(16개조), 軍令(5개조), 「通一鄉文」, 「檄本邑文」.

眞寶義兵

軍門坐目 : 大將, 副將, 倡義公事員, 書記, 哨官, 旗牌官, 募糧都監, 運糧都監, 一隊長, 二隊長, 三隊長, 四隊長, 五隊長, 六隊長.

軍門日記, 軍門節目, 「檄一鄉文」, 「答安東義陣文」.

龍宮鄉校

倡義坐目 : 倡義公事員, 倡義有司, 掌書.

倡義日記, 「答安東順興義陣文」, 「報號召使狀」.

권4

別錄

安東 掌令 金侃 등 18명, 尙州 別提 李滿敷 등 3명, 善山 士人 尹重邦 등 2명, 禮安 正郎 金東俊, 榮川 士人 宋萬宗 등 2명, 醴泉 正郎 李文標 등 3명, 寧海 縣監 權萬斗, 河東 士人 金重元.

續別錄[義錄을 登聞한 이후 사림의 여론에 따라 별도로 속록을 만들다]

安東 參奉 李浹, 善山 士人 金泗震.

新寧義兵

軍門坐目：大將, 助防長, 贊劃, 從事, 糧料官, 守糧官, 公事員, 白衣從事, 右防營中軍.
軍門日記, 「檄一鄉文」.

青松義兵

軍門坐目：大將, 有司, 參謀, 書記, 整齊有司, 募兵都監, 左哨官, 右哨官, 旗牌官, 組練將, 都摠, 副摠,
募糧都監, 運糧都監, 管糧都監, 左部將, 右部將, 隊長.
軍門日記..

間慶義兵

軍門坐目：大將, 中軍, 左領將, 右領將, 參謀, 都書記, 書記, 軍官, 行首軍官, 別軍官, 執禮旗牌官, 通
糧有司, 副有司, 給餉都監, 副監官, 醫官, 兵房, 哨官, 執操旗牌, 掌務.
軍門日記, 軍門節目, 「通一鄉文」, 「通尙州咸昌文」, 「答尙州義勝移文」.

咸昌義兵

軍門坐目：大將, 召募都監, 募糧都監, 掌書.
軍門日記, 「通一鄉文」, 「通尙州義陣文」.

義興鄉校

倡義坐目：都摠, 司兵都摠, 管餉都摠.
倡義日記, 通一鄉文, 報義城義將文.

軍威鄉校

倡義坐目：都摠, 司兵都摠, 管餉都摠.
「報義城義將文」.

慶州義將.

河陽義將.

義興洪氏倡義都摠.

권5

傳旨：命嶺南上下道號召使傳旨(英廟戊申三月日), 命嶺南右道召募使傳旨(英廟戊申三月日).

狀啓：按撫使狀啓(戊申四月初四日), 號召使狀啓, 號召使狀啓, 「召募使狀啓」(戊申四月初三日), 「召募
使狀啓」(戊申四月初三日).

筵說：己酉六月大臣入侍時筵說(英廟五年), 鍾城府使柳升鉉入侍時筵說(英廟五年), 正郎權萬入侍時筵
說(英廟二十二年), 「大臣秋曹堂上御史入侍時筵說」(英廟二十三年).

傳教：錄安東義將柳升鉉子孫傳教(英廟二十三年).

疏錄：進戊申倡義錄疏(丁卯十二年戊申), 「輦路上言」, 「禮曹回啓」, 「回啓後傳教」, 「大臣獻議」, 「獻議後傳教」, 「誠正閣疏儒入侍時筵說」, 「右相入侍時筵說」.

2) 1책이다. 「倡義錄上」, 「倡義錄下」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창의와 관련된 사실을 날짜별로 정리했다. 「창의록상」에는 무신년 3월 21일부터 3월 30일까지, 「창의록하」에는 4월 1일부터 4월 14일까지 일어난 일을 기록했다. 서술 방식은 중요한 내용을 큰 글씨로 쓰고, 그와 연관된 세세한 내용은 한 칸에 두 줄씩 細字로 쓰는, 綱目體 형식을 취하였다.

3. 내용

1) 유후조의 서문은 이 책이 간행된 경위를 밝히고 있다. 무신변란이 일어난 지 60년 되던 해인 1788년(정조 12), 義烈을 추념하여 안동의병장 柳升鉉과 權萬 두 사람에게 벼슬을 내리고 道臣으로 하여금 열읍의 實蹟을 채방하여 보고하도록 했으나 道臣이 이 일을 수행하지 않자 寡齋 李鎭東이 자료를 모아 중앙에 보고하였으며, 정조가 이 자료를 보고 도내에서 간행하도록 명령을 내렸으나 제때 실행되지 못하다가 80여년 뒤에 士林들이 힘을 모아 간행하기로 했다고 한다.

각 지역 의병들의 상황은 軍門日記, 軍門節目에 자세하다. 각 권에 실린 軍門日記, 軍門節目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동의 軍門日記 : 3월 15일 적이 호서지역에서 일어나서 청주병사 이봉상 영장 남연년을 죽였다. 적수인 인좌는 故 監司 李雲徵의 손자이다. 世祿의 가문이었으나 조정에서 뜻을 잃자 不軌를 몰래 도모하였다. 지금에 이르러 대원수라 칭하고 청주에 들어가 鬪帥를 죽이고 경성으로 곧바로 진격하려 했다. 3월 18일 : 안동부에 變報가 이르고 3월 19일 鎭將이 군인을 모아 城中을 戒嚴하고, 조정에서는 병조판서 吳命恒을 四道都巡撫使, 대사성 朴師洙를 嶺南按撫使兼安東鎭節制使, 典籍 柳徠를 從事官兼安東判官, 參議 李衡祥과 應教 趙德鄰을 上下道 號召使로 삼다. 3월 26일에 안무사 박사수, 호소사 조덕린, 종사관 유래가 안동에 도착했으며, 우도 召募使 黃翼再 또한 도착하다. 3월 27일에 정희량이 안음에서 일어나 湖賊과 호응했다는 이야기를 듣다. 兩使가 안동부의 知名之士와 함께 군무를 논의하다. 3월 28일 권덕수가 통문을 초하여 의거할 것을 일항에 알리다. 3월 30일 명륜당에 모여 의병장을 정하다. 前 正郎 유승현을 권점하여 뽑다. 그후 군문의 각 소임을 정하다. 의병장이 격문을 작성하여 본부의 각 면에 알리다. 4월 1일 양사와 의병장, 참모가 만나다. 4월 6일 밤에 안무사가 파적했다는 관문이 도착하다. 4월 7일 의병장 이하 여러 소임을 맡은 사람들이 안무사를 만나 사직 인사를 하다. 각양 문서를 수정하고 대장기를 비롯한 각양 旗幟와 器物을 손질하여 教中에 보관하고 오후에 파하여 귀가하다.

안동의 軍門節目은 모두 12조목이며, '각 면의 소모도감은 군사를 모은 후 成冊하고 分伍作隊하여 관군의 규모와 같이 한다. 도량도감 또한 각각 군량을 거두어 운납한다.', '鑪器와 飯器는 군문의

규례에 따라 가지고 온다.’, ‘각 면의 大小 學宮은 米太로써 軍餉을 도운다.’, ‘규정을 어기는 자는 군율에 따라 단죄하고 용서하지 않는다.’ 등이 주요한 내용이다.

尙州의 軍門日記 : 무신년 3월 15일에 호서 지역에 난적이 일어나고 3월 19일에 變報가 비로소 이른다. 수일이 지난 뒤 적들이 안음과 거창을 점령하고 좌수와 호장을 살해했다는 소식을 듣다. 4월 1일 소모사 황익재가 의병을 일으킬 것을 권유하는 글을 보내오다. 前衛 급 유생들이 玉成書院에 모여 창의할 뜻을 모으고 관에 알리다. 또 향교와 道南 興巖서원에 통유하다. 교임 및 부근의 유생들이 또한 교중에 모여 글을 만들어 관에 보고하다. 4월 2일 옥성서원의 諸員들이 향교에 모이고 오후에 소모사가 도착하다. 4월 3일 鄉人들이 본관과 소모사를 만나 군무를 稟議하다. 4월 4일 義勝大將을 선출하다. 전 군수 孫景錫이 낙점되다. 각 소임을 차출하다. 4월 5일 의병진이 金山으로 향하다. 소모관을 각 면으로 내 보내어 직접 檢察하게 하다. 각 學宮에 軍餉 米太를 분정하고 사환을 정하여 그로 하여금 募納하게 하다. 군향 米·太를 내도록 한 학궁은 다음과 같다. 鄉校·道南書院·玉成書院·近岳書院·鳳山書院·白玉洞書院·涑水書院·淵嶽書院·孝谷社·首陽書堂·高峯書堂·修善書堂·龍門書堂·修善書堂·龍門書堂·白華書堂·영빈서당·道谷書堂·松巖書堂·存愛院·醫局·修稷所·鳳巖書堂. 4월 6일 안무사의 적을 격파했다는 관문이 도착하여 義陣을 드디어 파하다.

禮安義兵의 軍門日記 : 3월 15일의 호서 적변을 24일 關文을 보고 알다. 4월 1일 전 도사 이수겸 전현감 이집이 역질을 피해 산속에 있다가 변란 소식을 듣고는 도산서원에서 사람들을 모아 창의할 것을 발의하고, 다음날 校中에 모이자고 고을 사람들에게 통고하다. 4월 2일 500여명이 향교에 모여 의병을 일으키기로 하고 이수겸을 상장, 이집을 부장으로 선출하다. 4월 3일 참모 金衡國을 안동으로 보내어 군부를 問議하다. 각 면의 소모도감이 올린 의병 명단을 성책하니 550여명의 의병. 李守恒이租 10석을 기부하다. 4월 4일 龍壽寺에 전령하여 旗鼓鐃角을 갖고 와서 바치게 하다. 兼官이 와서 상장과 부장이 만나보다. 각 면의 소모관에게 전령하여 초 6일날 作隊한 것을 점검하라고 하다. 4월 5일 교원 및 각 士夫들이 낸 것은 백미 20여석, 正租 100여석이다. 4월 6일 안동에 사람을 보내어 적의 형세 및 發兵 날짜를 묻다. 의병 550여명을 점검하다. 오후에 안무사가 적을 격파했다는 관문이 도착했으므로 의병을 파한다는 뜻을 안무사에게 보고하고 파하다.

軍門節目은 6조목이며, ‘20세 이상 50세 이하로 소모하며, 장자를 제외한 장정이 한 집에서 비록 5, 6명이라 할 지라도 소모한다.’는 내용이 특기할 만하다.

醴泉義兵 軍門日記 : 3월 18일에 호서의 적변을 듣다. 3월 23일 金谷의 倡義通文이 향교로 오다. 3월 26일 밤에 관군이 죽산 안성에서 난적을 격파했다는 소문을 듣다. 향회가 매일 열린다. 3월 30일 校任들이 향교에 모여 창의통문을 발하다. 4월 1일 200여명이 모여 상장에 前 正字 朴成玉, 副將에 前 縣監 權萬樞를 뽑고 소임을 정한 뒤 소유격문을 경내에 보내다. 4월 2일 군량을 각 學宮과 4면의 上中下人處에 분정하여 쌀 40여석, 錢 18량을 얻다. 4월 3일 별군관 장위규가 剃頭한 세 사람을 잡아 왔는데, 그 가운데 두 사람은 曠夏肅의 孫子이며 이인좌의 表從이라고 했다. 일을 시작하는 처음에 逆徒를 俘獲한 것을 축하하고 군수 徐宗一이 있는 조령산성의 유진소에 압송했

다. 賚賊의 供招에 이르길, 지난 3월 17일 밤 무리 수십 인이 예천으로 잠입하여 장차 병력을 모아 예천을 급습하고 곧바로 안동으로 가려 하였는데 예천에서 이미 軍兵이 대비하고 있어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簽丁所의 簽丁은 모두 924명이다. 4월 4일 군량을 다시 거두니 米 110석 5두, 錢 200량이다. 4월 6일 의병장이 조령산성에 도착하여 군수를 만나 사직을 위하여 같이 죽기로 맹세하다. 4월 8일 의병장이 조령에서 돌아오다. 義陣을 파하다. 당시 적도들이 밤에 讌賓樓에서 모였다가 떠났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軍門節目은 11조목이며, '秉彝의 마음은 貴賤이 한결같으니, 公私 下賤이라도 義陣에 따르기를 원하는 자는 허락한다.', '군량 기계를 바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다소에 따라 論賞한다.', '입약 후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군율에 따라 곤장을 친 뒤 毀家出鄉한다.'는 내용이 있다.

榮川義兵의 軍門日記 : 3월 15일에 이인좌의 반란이 일어나다. 25일 按撫使 박사수가 古致嶺을 넘어 본군에 오다. 28일 향인들이 鄉序堂에 모여 前 參議 羅學川을 대장으로, 전 장령 金征과 前 正字 鄭玉을 부장으로 뽑다. 29일 군사는 55세까지 제한하여 뽑기로 하다. 30일 부장 김정과 정옥, 참모 등이 안동으로 가 안무사와 호소사를 만나 討賊 方略을 논의하다. 4월 2일 군문을 鄉射堂에 설치하다. 陣月寺에 전령하여 旗幟 鉦鼓 吹螺 등을 가지고 오라고 하다. 4월 6일 안무사의 관문 내에 성주목사가 적병을 대파하고 안동 영장이 적을 격파하고 돌아왔다는 내용이 나온다. 4월 7일 관군이 모두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義旅 또한 파하다.

順興義兵의 軍門日記 : 3월 18일 연풍현감 김정구가 이인좌의 격문을 베껴 그의 숙부 전현감 김화중의 집에 보내와 비로소 청주가 이인좌에게 함락되었다는 소문을 들었다. 3월 23일 진영에서 열읍에 관문을 내려 병졸을 모아 요충지를 지키도록 하다. 3월 24일 안무사가 고치령을 거쳐 순흥부에 도착하다. 3월 25일 금부도사가 拿將을 대동하고 순흥부에 도착하여 죄인 정희량을 잡을 것을 명하였다. 정희량이란 이름은 없었는데 금부도사가 관군을 이끌고 鄭宜璉의 집을 포위했는데 의련은 鄭遵儒의 조카로 갑오년에 안음에서 올라와 순흥부에 살았다. 의련과 그의 從弟 宜璉은 이미 기미를 알고 몸을 피한 뒤였다. 뒤에 들으니, 정희량은 정준유의 變名이며, 3월 중에 遷葬한다는 구실로 募丁하여 거창에서 造逆했다고 한다. 4월 1일 사람들이 향청에서 모여 의병장에 前 察訪 李徵道를 뽑다. 안무사의 관문에 따라 정의련과 정의황을 石川浦에서 追捕하다. 안무사가 관문으로 정희량의 모, 처, 가솔을 붙들어 嚴囚하고 의련과 의황은 京師로 압송하며 그 妻子 姪婦는 거두어 枷囚하라고 하다. 4월 5일 난역이 평정되었다는 관문이 도착하여 義陣을 파하다.

軍門節目은 모두 13조목이며, '군량은 三所와 書堂에 분정한다.', '旗幟와 鼓鉦 등의 물품은 각 寺에서 取用한다.'는 내용이 있다.

豐基義兵의 軍門日記 : 3월 18일 호서의 賊變을 듣다. 4월 1일 士人 金胄嶷 등이 향교로 들어와 창의의 통문을 발송하다. 4월 2일 각 면에 통문을 돌리다. 4월 4일 향사당에 의병청을 설치하다. 75인이 모여 상장과 부장을 뽑다. 각 면에서 뽑은 군병 168인의 명단이 작성된다. 4월 7일 역적을 격파했다는 관문이 도착하여 의병을 파하다.

軍門節目은 '형제가 비록 많더라도 1명만 뽑는다.', '旗幟 鼓鉦 등은 사찰에서 取用한다.'는 내용이

있다.

永川義兵의 軍門日記 : 무신 3월에 호서의 변란을 듣다. 3월 29일 참봉 鄭葵陽이 격문을 써서 고을에 전하다. 4월 1일 안무사 박사수가 참봉 鄭萬陽·葵陽 형제에게 편지하여 軍機를 지휘할 뜻이 있는지 묻다. 4월 2일 정규양을 의병장으로 뽑고 군문의 각 소임을 정하다. 4월 6일 號召使가 本郡에 巡到하여 의병장 이하 참모를 만나다. 4월 7일 破賊 관문이 도착하여 의병을 해산하다.

軍門節目은 '사족 자제로서 30세 이상 50세까지 모두 종군한다. 독자로 형제가 없는 경우 면한다.', '有故者는 家丁 2인을 대신 보낸다.', '布粟 戰馬를 바칠 경우 들어준다.'는 내용이 있다.

義城義兵의 軍門日記 : 3월 20일 호서 적변을 듣다 25일 신령 등이 창의할 계획을 고을에 알리다. 3월 28일 客舍 西軒에서 鄉會를 열다. 3월 29일 사람들이 향교에 모여 의병장으로 申濂을 뽑고 열읍에 고하다. 4월 1일 3조의 군법을 정하고(적과 맞닥뜨린 뒤 먼저 물러가면 참한다. 명령을 어겨 기회를 놓치면 참한다. 訛言으로 군중을 혼란스럽게 하면 참한다.) 문루에 크게 써 붙였다. 호소사가 와서 군문을 보고 義興으로 가다. 4월 2일 五寺의 首僧이 와서 旗鼓 槍劍등의 기물을 바치다. 4월 5일 習陣. 4월 6일 군대를 움직여 賊陣으로 향하려고 하다. 誓文을 써서 軍中에 고하다. 4월 7일 적병이 패멸했다는 소문을 듣다. 4월 8일 안무사, 호소사의 관문에 따라 義陣을 파하다.

英陽義兵의 軍門日記 : 3월 15일 호서의 적이 일어나다. 3월 26일 안음의 賊報를 듣고 鄉廳에서 鄉中에 통문을 돌리다. 號召使의 격문이 도착하여 향인들이 객사에 모두 의병장을 뽑고 임무를 나누어 정하다. 4월 7일 파적 관문이 도착하여 義陣을 파하다.

奉化義兵의 軍門日記 : 3월 15일 호서에 적이 군사를 일으키고 얼마 안 있어 안음에서 적이 계속 일어나자 금중 등이 校院任과 留鄉 등과 함께 창의하기로 의논하다. 3월 28일 향교에 향인들이 모여 군문을 大同廳에 설치하기로 金至恒을 의병장으로 추대하였다. 4월 1일 좌우장이 격문을 쓰고 군문 조약을 정하였다. 4월 2일 호소사에게 창의 사실을 보고하였다. 4월 6일 파적 관문이 도착하다. 4월 7일 군문을 거두어 돌아가다.

軍門節目은 안동의 절목과 같으며, 별도로 16개조의 「軍門規約」, 5개조의 軍令이 있다. 군령에는 '북소리를 들으면 싸우고, 징소리를 들으면 멈춘다.', '북소리가 끊어지지 않으면 진격하며 후퇴하지 않는다.', '후퇴하는 자는 斬한다.', '軍機를 漏泄한 자는 참한다.', '명령을 잘 활용하는 자는 상을 주고 명령을 활용하지 못하는 자는 벌을 내린다.'는 내용이 있다.

眞寶義兵의 軍門日記 : 3월 18일 적에 관한 소식이 오다. 3월 28일 權聖天이 창의 뜻의 고을에 알리다. 3월 29일 향인들이 饗堂에 모여 公事員을 뽑다. 3월 30일 객사 문밖에 의병 군문을 설치하고 李思九를 대장으로 뽑다. 6대로 나누고 각 대당 10명씩 거느리게 하다. 4월 1일 안동에서 창의통문이 오다. 4월 6일 안동의 의진과 군대를 합하여 전장에 나아가려 했는데 난역을 평정했다는 관문이 도착하여 의병을 파하다.

軍門節目에는 '형제가 많은 경우, 그 가운데 1명이 군진에 나온다.', '草土에 살더라도 쓸 만한 재주를 가지고 있으면 군진에 나온다.'는 내용이 있다.

龍宮鄉校의 倡義日記 : 3월 15일 적이 호서에서 일어나다. 3월 30일 안동의 창의통문이 오다. 號

召使의 관문이 오다. 4월 1일 교원임들이 창의의 뜻을 일향에 알리다. 4월 2일 士林들이 향교에 모이다. 4월 3일 백여명이 모여 군문의 각자 임무를 정하고 관문을 기다리다. 4월 4일 조령에 있는 본관의 유진소에 113명이 의거했다는 소식을 알리다. 수일 뒤 破賊 관문이 도착하여 의병을 파하다.

권4의 「續別錄」은 「倡義錄」을 登聞한 이후 사림의 여론에 따라 별도로 만들었다. 각 고을 의병의 군문일기는 다음과 같다.

新寧義兵의 軍門日記 : 3월 15일 적이 호서에서 일어나자 안무사 호소사를 열읍에 보내어 의병을 일으키도록 하다. 鄉老 權復衡이 향인들에게 의병을 일으킬 것을 권했으며 향인들이 그의 아우 權益衡을 의병장으로 뽑다. 객사 문 밖에 군병을 모아 군진을 설치하다. 金烏陣에서 적을 먼저 격파하고 남은 적들이 모두 평정되었다는 말을 듣고 의병을 파하다.

靑松義兵의 軍門日記 : 3월 20일 청주 역변을 듣다. 22일 本官이 松鶴樓 아래에서 點兵하다. 4월 2일 안동에서 通文이 오다. 4월 5일 향인들이 鄉射堂에 모여 義兵軍門을 설치하고 趙德昇을 의병장으로 뽑다. 4월 8일 捷報가 도착하여 각 읍에 명령하여 의병을 파하다.

間慶義兵의 軍門日記 : 3월 17일에 청주 賊變을 듣다. 4월 2일 향인들이 모여 대장을 선출하고 각자 임무를 분정하다. 4월 3일 군문을 武學堂으로 옮겨 설치하고 절목을 정하다. 4월 4일 북면으로 사람을 보내어 別武士를 뽑도록 하다. 4월 7일 操練하다. 4월 8일 파적 관문이 도착하여 의병을 파하다.

咸昌義兵의 軍門日記 : 3월 18일 청주 적변을 듣다. 3월 26일 본관이 군사를 이끌고 상주진으로 향하다. 4월 3일 향인들이 벽(辟+石)大廳에 모여 大將을 뽑고 각자 임무를 정하다. 4월 7일 안무사 관문으로 인해 의진을 파하다.

권5는 사건 이후 반란 진압과 경상도 의병에 대한 정부의 처리 및 이 책의 간행에 대한 기록들을 모은 것이다. 먼저 傳旨로서 1728년 3월에 영조가 내린 「命嶺南上下道號召使傳旨」와 「命嶺南右道召募使」를 실었고 그 뒤에는 安撫使·號召使·召募使 등이 올린 장계가 5편 실렸다. 이어 1729년 5월의 安東 의병장 柳升鉉 등에 대해 포상을 논의한 내용으로부터 유승현과 權萬이 입시켰을 때의 것 등 筵說 5편이 있고, 그 뒤에 영조가 내린 「錄安東義兵將柳升鉉子孫傳教」가 있다. 疏錄에는 1788년 幼學 李鎮東 등이 「戊申倡義錄」을 바치는 상소와 그것과 결부된 「輦路上言」을 신고 「禮曹回啓」 및 그에 따른 전교, 大臣의 獻議 내용, 정조가 상소를 올린 이진동 등을 불러들였을 때의 筵說, 우의정의 건의를 수록하였다.

2) 申濂이 쓴 「戊申倡義錄」은 의성 지역에서의 거병 사실을 상·하 두 권에 걸쳐 날짜별로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그날의 기후, 關文과 通文에 관한 사실이 자세하다. 날짜별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倡義錄上」

3월 21일 : 적이 淸州를 범하여 兵使 李鳳祥, 營將 南延年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다.

3월 22일 : 營關이 本縣에 도착하다.

3월 23일 : 鎮營에서 군사를 일으킨다는 관문이 오다.

3월 24일 : 縣官이 傳令하여 點兵하다. 營吏가 巡使啓草와 安陰賊書를 베껴서 오다.

3월 25일 : 朝報에서 吳命恒을 四道都巡撫使, 박사수를 嶺南按撫使兼安東府使, 조덕린을 慶尙道 號召使로 임명했다는 내용을 보았다.

3월 26일 : 鎮關이 本縣에 도착하다.

3월 27일 : 글을 작성하여 온 고을 사람들이 學義하도록 할 계획을 갖다. 鎮營에서 私通文이 왔는데, 즉시 赴義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3월 28일 : 客舍 西軒에서 鄉會를 열다. 監兵營 관문과 按撫使 號召使 관문이 오다. 主倅이 軍糧을 安平으로 수송했다. 밤에 宣傳官이 本縣으로 오다. 鄉會에 참가한 사람들의 명단 67명.

3월 29일 : 새벽에 선전관이 의흥으로 떠나다. 사림 100명 등이 명륜당에 모여 모임을 갖고 나를 의병장으로 圈薦하다. 按撫使 號召使의 관문, 營關이 오다. 鎮將이 군사를 이끌고 居昌으로 향하다가 安平에서 숙박하다. 本縣에서 軍器를 比安으로 수송하다. 향회에 참가한 사람들의 명단, 177명. 公事員, 曹司 등 분정. 義將薦圈點은 生員 申濂이 120分, 前宣傳官 金履中이 14分 등. 「通道內 士林文」을 짓다.

3월 30일 : 식후 명륜당에서 개좌하여 軍任, 각 면의 募兵 募糧都監을 정하고 12절목의 군문절목을 상하 민인에게 알리다. 校院 각 곳에 支供을 배정하다.(향교 2일, 氷溪 2일, 鄉廳 2일, 藏待 1일, 學山 1일, 興學齋 1일, 醫局 1일). 軍門都摠 이하 播任錄 . 節目(13조목)

「倡義錄下」

4월 1일 : 새벽에 여러 사람을 이끌고 聖廟에 알현하고, 행단 아래 개좌한 뒤, 戎服을 갖추어 입고 북향하여 재배하다. 地主에게 醫局의 약을 의병에게 소속시키게 해달고 청하여 허락을 얻다. 각 면의 募兵 募糧都監에게 내리는 글.(8조목) 軍額都摠(士林 353명, 향교 校生과 校奴 50명, 빙계 서원 원생과 원노 30명, 학산서원 원생과 원노 10명, 장대서원 원생과 원노 15명, 흥학재 假屬 5명, 鄉廳 假屬 20명, 醫局 약부와 가속 260명, 아주 신씨 문중을 비롯한 18개 문중에서 奴丁 199명), 군량 배정(향교, 향청, 빙계, 학산, 장대, 의국, 興學齋)

4월 2일 : 식후 행단에 개좌하여 組練에 관한 여러 절목을 의논하다. 軍威 창의소에서 召募節目 등을 청하여 주다.

4월 3일 : 합천의 적괴 肅聖佐가 사로잡혔다는 이야기를 듣다. 五寺의 首僧이 旗鼓 槍劍 등의 물품을 와서 바쳤다.

4월 4일 : 鄉兵을 點閱하다. 6일에 桃院으로 移駐하여 형세를 보아 전전할 계획을 논의하다. 각 면의 召募都監이 成冊을 가지고 오다. 안동창의소 격문이 오다.

4월 5일 : 조련장과 行軍節次를 논의하다. 각 면의 소모도감에게 알려 軍糧을 가지고 도원으로 모

이게 하다.

4월 6일 : 도총, 참모 등과 함께 도원으로 달려가 設陣 餉軍 등의 일을 조치하다. 巳時에 길을 떠나며 摺文을 軍中에 告諭하다.

4월 7일 : 按撫使의 관문으로 말미암아 師期를 조금 늦추고, 比安·軍威·義興 倡義所에 글을 보내어 기다리게 하다. 巳時에 적병의 패배했다는 소식을 듣다.

4월 8일 : 안무사 호소사의 回題가 오다.

4월 9일 : 都巡撫史 關文이 본현에 도착하다. 향인들이 파하여 집으로 돌아가다. 모인 군량과 기물등은 곧 환급하도록 하다.

4월 10일 : 호소사 관문이 오다.

4월 14일 : 안동향교, 예안향교의 私通이 오다. 倡義文字를 수습하여 巡撫使 行營으로 封上하다.

4. 가치

여기서 소개한 〇무신창의록〇은 1728년 청주, 안음, 거창 등지에서 일어났던 변란에 대처하여 경상도 북부 지역에서의 의병활동을 자세히 기록한 자료이다. 변란을 일으킨 세력 혹은 이들을 토벌한 사람들이 작성한 자료가 아니어서 무신란 자체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지만, 경상도 지역의 士林들이 이 사건에 어떻게 대처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사실을 알려준다. 1728년의 무신란 연구, 그리고 18세기 지방의 사림들의 사회적 존재 형태에 대한 연구에 크게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이다.

이진동이 작성한 〇무신창의록〇은 목판으로 간행되었기 때문에 같은 내용의 자료가 많이 존재하여 그 가치가 조금 떨어지지만, 신림이 작성한 〇무신창의록〇은 간행되기 이전의 자료로 사료적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자료에서는 특히 무신란이 일어날 때부터 마무리될 때까지 의성지역에서 있었던 모든 일, 오고간 공문서와 私通文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접할 수 있다.

이 자료는 戊申亂의 전말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정리한 기록인 〇勘亂錄〇·〇戊申別騰錄〇·〇戊申獄案抄〇, 그리고 또 경상도의 의병에 대한 기록인 〇慶尙道戊申倡義事蹟〇(1책) 등과 함께 활용한다면 무신란 연구에 크게 유용할 것이다.